

도레이社, 식물유래 'ecodear® PET' 섬유를 사용한 물놀이 의류용 신소재 출시

도레이社는 2016년 시즌 물놀이용 소재로 식물유래 PET 'ecodear® PET' 섬유를 사용한 신소재를 출시하였다.

도레이社에서 개발한 'ecodear for swim'은 세섬도화한 'ecodear® PET' 섬유와 스판덱스 섬유 '라이크라' 소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초기 1만 벌, 3년 후 5만 벌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.

'ecodear® PET' 소재가 물놀이 의류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, 이 소재는 일반 'ecodear® PET' 실에 비해 50% 가는 섬도를 가진 실과 내염소성이 우수한 라이크라를 이용하여 만든 편성물로 자외선차단성과 파우더 촉감의 부드러운 착용감과 우수한 발색성을 가진다.

도레이社는 일본 Ai(San-ai Mizugi Rakuen) 브랜드와의 협업과 백화점 판매로 판매량을 확대할 예정으로 물놀이 의류뿐만 아니라 래시가드(Rash Guard)를 시작으로 관련 용품류로의 제안, 야외용 마스크나 아웃도어용 등 다양한 용도전개를 진행할 예정이다.

매출에 있어서는 물놀이용도로서 이전 분기 대비 약 1.5 % 증가한 134만 벌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, 그 외에 수영복 소재의 판매에서는 수영인구의 증가 등 시장의 활성화를 전망해 242만 벌(이전 분기 실적 230만 벌), 피트니스용으로 312만 벌(이전 분기 실적 306만 벌), 아동 및 교복 139만 벌을 예상하고 있다.



<물놀이 의류용 'ecodear® PET'>

♠ 섬유뉴스(2015. 10. 30)